

- **주요 뉴스:** 주요국의 매파적 통화긴축 발언 증가. 일본 물가 예상치 상회
 - ECB,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성장 억제할 정도까지 금리인상 필요성 시사
 - 콜린스 연은 총재, 12월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인상 가능성 상존 발언
 - 일본 10월 근원 소비자물가, 전년동월 대비 3.6%로 1982년 이후 최고
 - **국제금융시장:** 연준의 매파적 발언 영향으로 위험회피 강화 속 주가는 소폭 상승
주가 상승[+0.5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상승[+6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지수는 통화긴축 우려 불구 긍정적인 기업실적 등으로 상승
 유로 Stoxx600지수는 소매,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큰 폭 상승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유지 영향으로 강세
 유로화, 엔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. 호주, 캐나다달러는 유가 하락 영향으로 약세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콜린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6bp 상승
 미국 수익률 고선은 중단기물 주도 상승으로 역전현상 심화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39.59원, -0.40원) 0.03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11/18일	11/17일	전일대비			11/18일	11/1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965.3	3946.6	0.48%	국채 금리 10y	미국	3.8288	3.7657	6bp
	유럽	433.33	428.38	1.16%		독일	2.014	2.02	-1bp
	중국	3097.24	3115.44	-0.58%		영국	3.239	3.202	4bp
	일본	27899.77	27930.57	-0.11%	CDS 5y	한국	52.335	53.305	-1bp
	한국	2444.48	2442.9	0.06%		중국	79.435	84.315	-5bp
	달러지수	106.93	106.694	0.22%	위험 지표	EMBI+	406	408	-2bp
환율	유로화	1.0325	1.0362	-0.36%		VIX	23.12	23.93	-3.38%
	엔화	140.37	140.2	-0.12%		WTI유	80.08	81.64	-1.91%
	위안화	7.1198	7.1578	0.53%	원자재	구리	363.2	368.8	-1.52%
	원화	1340.3	1339.1	-0.09%		금	1750.68	1760.44	-0.55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 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ECB 총재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정책 외 더 많은 도구를 활용할 필요

-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높은 차입비용(금리인상) 외에 다른 정책 도구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언. 내년에 5조유로 규모의 채권 포트폴리오 축소를 시작하겠다고 약속
-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환경에서 금리 정책이 여전히 통화정책 입장을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임을 인정하면서 대차대조표를 측정 및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
- 구체적으로, ECB는 신규 매입을 통해 대체하지 않는 만기 유가증권의 양을 꾸준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3조 2천억유로 규모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
- ECB는 금리를 추가 인상해 예금금리를 2%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. 이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시키고 임금 인상 기대를 낮추는 효과를 도모. 아울러 다른 정책 도구도 정상화하여 통화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
- ECB는 예금금리를 7월 -0.5%에서 10월 1.5%로 큰 폭 인상했으며,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차기 통화정책회의(12.15일)에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논의하기로 약속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총재, 12월 75bp 금리인상 가능성 여전히 상존

-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,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한 시점
- 추가 금리인상 이후에는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서 한동안(for some time)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뒤따를 것

■ 미국 10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0.8% 하락하며 예상 하회

- 컨퍼런스보드에서 발표한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114.9로 전월보다 0.8% 하락(블룸버그 예상치는 0.4% 하락). 구성항목 중 금리스프레드가 0.11%p 기여한 반면, 소비자기대는 -0.25%p 기여

■ IMF, 영국의 재정긴축 계획 지지

-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영국이 추진하려는 55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 계획을 환영한다고 발언
- 지난 9월 전임 정부가 발표했던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비판한 것과 대조

■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(CPI), 40년 8개월래 가장 큰 상승폭 기록

- 10월 근원 CPI는 전년동기대비 3.6% 상승하며 1982년 2월(3.6%) 이후 최고치. 금년 9월(3.0%)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작년 8월 이후 14개월째 오름세.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연화 약세가 가세하며 수입 물가가 급등한 영향
- 그러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일본은행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. 구로다 총재는 10월 CPI 상승세가 상당하다고 평가했으나 다음 회계연도에는 물가상승률이 2%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

■ 유로존 은행권, 약 3,000억유로의 저리 ECB 대출을 상환할 계획

- 금리인상 여파로 정책 입안자들이 다음주부터 자금 조달비용을 인상하기로 결정해 유로존 역내 은행들은 ECB로부터 빌린 2,960억유로의 저금리 대출을 상환할 계획. 이는 유로존의 22년 단일 통화 역사상 ECB의 대차대조표 감소 중 가장 큰 규모

■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, 내년 성장률 목표 최소 5%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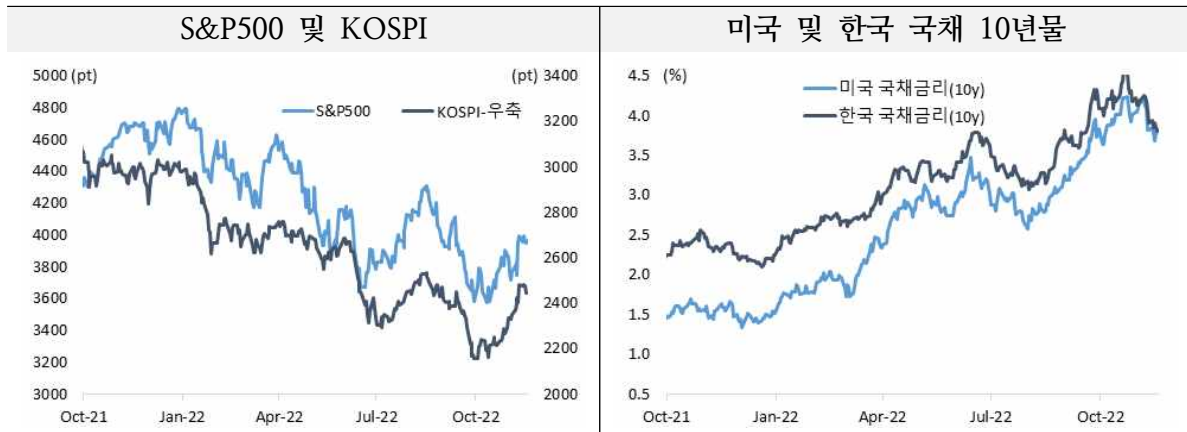
- 류시진(Liu Shijin) 인민은행(PBOC) 통화정책위원, 중국의 내년 목표 GDP 성장률이 최소 5%는 되어야 한다고 발언. 중국 정부는 '22년 성장률 목표를 5.5%로 삼았으나,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올해 3.3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
- 성장률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며, 내년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 여파가 완화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내년 중국의 성장률은 5%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발언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1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기준주택판매: 443만채, 9월(471만채), 예상치(440만채)
- 영국 10월 소매판매(mom): 0.6%, 9월(-1.5%), 예상치(0.7%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5, E-mail kimhj@kcif.or.kr